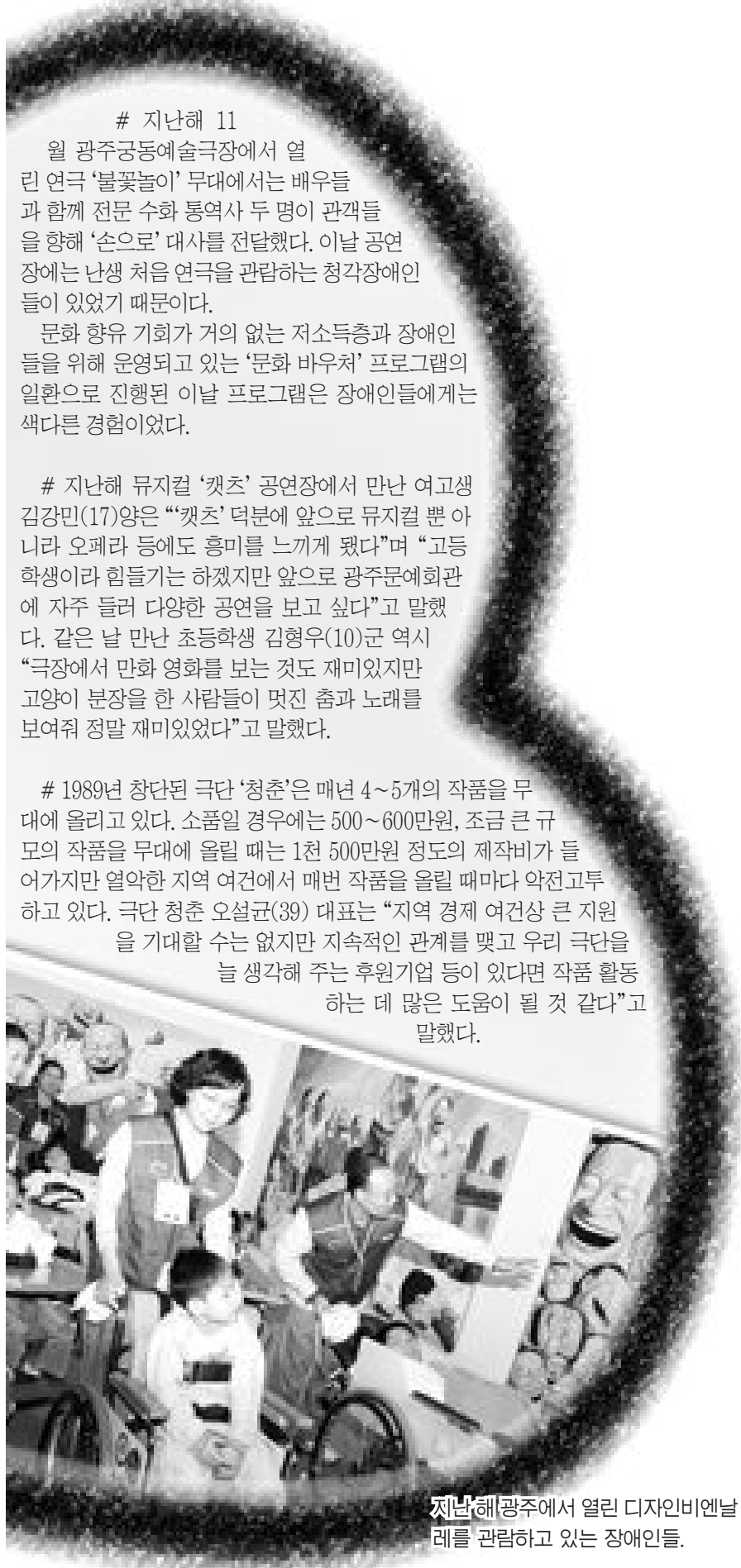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201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광주일보사는 문화 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Hand in Hand' 캠페인을 시작한다.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과 미래의 문화 애호가인 유치원생, 초·중·고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바우처 운동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기업 메세나 운동이 큰 골격이다.

# 소외된 이웃과 '문화 체험' 나누자



# 지난해 11

월 광주공동예술극장에서 열린 연극 '불꽃놀이' 무대에서는 배우들과 함께 전문 수화 통역사 두 명이 관객들을 향해 '손으로' 대사를 전달했다. 이날 공연장에는 난생 처음 연극을 관람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 향유 기회가 거의 없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 바우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 지난해 뮤지컬 '캣츠' 공연장에서 만난 여고생 김강민(17)양은 "캣츠 덕분에 앞으로 뮤지컬 뿐 아니라 오페라 등에도 흥미를 느끼게 됐다"며 "고등학생이라 힘들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광주문화회관에 자주 들러 다양한 공연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날 만난 초등학교생 김형우(10)군 역시 "극장에서 만화 영화를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고양이 분장을 한 사람들이 멋진 춤과 노래를 보여줘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 1989년 창단된 극단 '청춘'은 매년 4~5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소품일 경우에는 500~600만원, 조금 큰 규모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는 1천 500만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 어가지만 열악한 지역 여건에서 매년 작품을 올릴 때마다 약전고투 하고 있다. 극단 청춘 오설근(39) 대표는 "지역 경제 여건상 큰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극단을 늘 생각해 주는 후원기업 등이 있다면 작품 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있는 장애인들.

(1) 프롤로그

광주는 '예향'을 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으로 하드웨어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적 인프라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소프라노 신영옥의 공연이 티켓 판매 부진으로 취소된 데서 보듯 광주의 문화 향유 인구는 '예향'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또 생계 문제가 버거운 저소득층에게 공연장이나 미술관 방문은 '남의 일'일 뿐이다.

문화 생산자들의 사정은 어떤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만 의존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작품의 수준'을 논하는 건 사치로 보인다. 그나마 실력 있는 예술가들은 서울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 바우처' 운동 확산을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2006 문화향유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득 계층의 76%는 1년간 단 한차례도 문화행사를 관람한 적이 없었다. 3년전 조사 결과 보다 3%가 떨어진 수치다. 반면 월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의 74%에서 2006년에는 81.5%로 증가했다.

또 통계청의 '문화소비 양극화'조사에서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의 교양·문화 서비스 지출금액이 월 25만7천500원으로 하위 10%의 계층의 지출금액인 3만1천400원 보다 8배 가까이 높았다.

문화를 즐기는 '마니아층'이 늘어난 반면,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은 아직은 미미하다.

1인당 최고 5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광주 지역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예산은 8천700만원이었으며 이용 인원은 모두 6천500명이었다.

문화소의 계층은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거동 등이 불편해 문화 현장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질실한 상태다. 또 노인들과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새터민 등 모두를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래의 문화 애호가 길러내기

공연을 즐기고 전시를 감상하는 문화애호가들은 문화중심도시를 든든히 받치는 주춧돌이다.

미래의 문화 애호가를 키우는 일은 우선 문화를 자주 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고 시절부터 좋은 공연과 전시 등을 접하거나 직접 체험하다 보면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키울 수 있고,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행 평가는 학생들의 문화 마인드 고취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년에 1~2회씩 음악회에 참석해 감상문을 써내는 형식적인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고역일 뿐 아니라, 일반 관객에게도 불쾌감을 주기 일쑤다.

무엇보다 의무감에 공연장을 찾은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회는 따분하고 재미 없다"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아 수행평가가 오히려 문화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역 문화 예술단체들이 '미래의 문화 애호가'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 공연을 진행하는 게 급선무다. 또 광주를 찾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회를 아이들이 자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예술단체 지원

지역 문화 예술단체들에게 울산은 부러운 도시다.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은 150억원이 넘는 돈을 메세나 활동에 쓰는 등 지역 기업들은 문화에 투자하는 걸 자랑거리로 여긴다.

울산시 역시 50개 기업과 지역 단체간에 '1사-1단체' 자매 결연을 추진하는 등 단체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04년 광주메세나협회가 출범했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고, 광주시가 추진했던 지역 기업·단체와 예술단체간의 결연 작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열악한 지역 여건 상 서울과 울산처럼 대

규모 지원은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메세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기업 뿐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 문화 애호가들로 구성된 소모임, 개인도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사가 장기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Hand in Hand'는 지역의 문화 향유 실태를 진단하고 다양한 문화 나눔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국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민과 예술단체, 기업,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래의 문화 애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수상한 교육동체-결'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수준 높은 공연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도 문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해 주는 등 문화나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2007년 '캣츠'가 공연된 광주문화회관 로비 모습.

2008 새해 특집

## 세히 보면 많이 받으실어요.

<p><b>대명도어산업</b></p> <p>111-0001 광주광역시 남구 대명동 111-1</p>	<p><b>지시르결혼정보</b></p> <p>111-0001 광주광역시 남구 대명동 111-1</p>	<p><b>오박산</b></p> <p>111-0001 광주광역시 남구 대명동 111-1</p>	<p><b>정수준 캠퍼스</b></p> <p>111-0001 광주광역시 남구 대명동 111-1</p>
---	--	--	--